

## 북한 콩의 파종기 지연에 따른 생육시기 및 초형 분석

박세준<sup>1\*</sup>, 한경덕<sup>2</sup>, 김 옥<sup>2</sup>, 이석영<sup>3</sup>, 양운호<sup>4</sup>

<sup>1</sup>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연구소

<sup>2</sup>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

<sup>3</sup>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

<sup>4</sup>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

### [서론]

북한 유래 콩의 재배 및 수량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파종기 지연 처리에 따른 개화시 및 수확기의 변동과 재배품종의 초형을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에 공시된 북한 유래 콩은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한 북한 콩 중 비교적 수확기가 빠른 품종으로 ‘장단백목’을 포함한 30품종을 분양받았으며, 대조품종으로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재배되는 ‘연풍콩’을 포함한 한국 콩 4품종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분양받았다. 재배시험은 경기도 남양주군 덕소에 소재한 고려대학교 부속농장에서 실시하였으며, 파종기는 2처리로 2017년 6월 19일과 6월 30일로 하였다. 조사항목으로는 개화시와 수확기 및 초형이 조사되었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북한 유래 콩 30품종의 6월 19일 파종에서 개화시는 7월 14일~8월 5일이었으며, 파종 후 개화시까지의 일수(개화시 일수)는 30품종 평균 35일이었다. 6월 30일 파종에서 개화시는 7월 25일~8월 15일이었으며, 평균 개화시 일수는 36일이었다. 대조품종으로 공시된 한국 4품종의 평균 개화시 일수는 41~43일로 나타났다. 북한 품종 중 ‘Zocherhevchen’의 개화시 일수는 25일로 가장 짧았으며, ‘Sunchenkong’을 포함한 3품종의 개화시 일수는 약 47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. 6월 중-하순의 파종시기에서 파종기 지연에 따른 개화시 일수의 변동은 ‘Komujonkon’, ‘만풍콩’에서 단축된 것을 보였으며, 그 외 품종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. 북한 품종 중 수확기가 가장 빠른 품종은 ‘Brekhat’를 포함한 3품종으로 수확기가 9월 19일로 결정되었으며, 이는 파종 후 92일로 기록되었다. 이 시점의 ‘연풍콩’의 생육단계는 종실비대성기(R6)이었다. 북한 콩 품종의 초형은 대부분의 품종에서 분지의 발생이 많고 하위부의 분지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절단되는 현상을 보였으며, 전반적으로 도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, 초형 개선을 위한 초형분석 및 육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.

### 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2465022017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\*주저자: Tel. 02-3290-3482, E-mail. hiswman@korea.ac.kr